

## SDF 성료! 전 세계 이목 집중, 미래에 새 돌파구 제시



### 세계 정상급 연사 60여명, SDF 역대 최대 성과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서울디지털포럼(SDF) 2015'가 5월 20일(수)과 21일(목) 이틀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 여야 당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포함해 SDF 역사상 가장 많은 연인원 3800여명(잠정집계)의 참석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SBS TV와 SBS CNBC뿐 아니라 SBS 홈페이지, 네이버, 유튜브 브 SDF채널, SDF 사이트를 통해 포럼 전 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참석하지 못한 국내외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포럼을 지켜봤다. '깨어있는 호기심-돌파구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SDF 2015'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책임프로듀서이자 세계적인 우주 분야 이론 물리학자인 킵 손 박사가 워홀 같은 우주의 신비로운 이론들을 설명해 호기심을 자극한데 이어 천재소년으로 유명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송유근 군과 Q&A 시간을 가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녹색혁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공동창업자 겸 CTO JB 스트로벨, 세계 50개국을 넘는 곳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클래시오프클랜'의 제작사 슈퍼셀의 CEO 일카 파나넨, 과학수사물의 열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 20억 명의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미국 TV 드라마 <CSI> 프랜차이즈의 책임제작자 앤서니 E. 자이커, 담배회사 내부고발자와 방송사 간 갈등을 다룬 영화<인사이드>의 실제 주인공이자 탐사보도의 대가인 로웰 버그만 등 세계 정상급 연사 60여명이 참석, 인류의 호기심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온 사례를 이야기하고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의 돌파구를 제시해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축하 화제

올해 SDF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나란히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를 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세계 평화와 국제협력 활동에 앞장서온 반기문 총장은 UN 창립 70년을 맞아 5월 20일(수) 시작된 'SDF 2015' 개막식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철회해 일정이 무산됐다는 뉴스를 처음 전함으로써 내외신에 주요뉴스로 타전되는 등 SDF가 글로벌 뉴스의 현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기문 총장은 'ICT 시대,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로 기술이 세계 평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술로 인해 초연결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집단지성을 발휘해 글로벌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 디지털 시대와 미디어 산업 미래에 새 화두

또한 'SDF 2015'는 30여 개의 메인 세션 외에 별도로 진행된 심화세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방송산업의 미래: 파괴적 혁신을 넘어'라는 연구가 SBS 25주년을 맞아 SDF 심화세션 무대에서 발표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디지털 페어런팅' 세션에서는 서로 다른 디지털 문화에 대한 경험으로 야기되는 부모와 자식세대의 갈등을 부모, 자식, 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정부 유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SDF개막에 앞서 5월 18일(월)~19일(화)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SDF의 연계행사로 진행한 '제2회 글로벌 해커톤-웨어러블 챌린지'는 ICT기술과 디자인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삼성전자, 성균관대학교, 행정자치부 등에서 37팀 170여명이 참여해 무박 2일로 밤잠을 자지 않고 앱 개발을 하며 열정을 불살랐다. 올해는 특히 개발자와 디자이너 외에 '스토리텔러'를 두게 함으로써 만들어진 서비스가 방송콘텐츠로서도 활용가능한지까지 고민하게 해 방송사가 하는 해커톤으로서의 차별화에도 성공했다. T.I.M.E(Technology, Information, Media, Entertainment)분야의 국내 유일한 비영리 글로벌 포럼인 SDF(서울디지털포럼)는 2015년, SBS 창사 25주년을 맞아 기획본부, 보도본부, 제작본부 등 사내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뤄졌고, 미디어그룹 간 최고의 협력 네트워크를 발휘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명실상부한 종합예술로서, 세계적인 지식 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 ‘가면’ 쓰고 돌아온 수애, 시청자 사로잡다... 네 남녀의 걱정 멜로 <가면> 첫 방



<냄새를 보는 소녀>가 떠난 자리에 걱정 멜로가 왔다. 시청률의 여왕, 수애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면>(극본 최호철, 연출 부성철)이 5월 27일(수) 첫 방송됐다.

수애가 분한 지숙은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재벌가 여성 은하의 삶을 살게 되면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가면>은 이런 지숙을 둘러싸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는 민우(주지훈 분), 지숙의 실체를 밝히려는 미연(유인영 분)과 숨기려는 석훈(연정훈 분) 등 네 남녀가 한 저택에서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경쟁과 암투, 음모와 복수, 미스터리를 그린다.

5월 19일(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부성철 감독은 “<상속자들>을 연출할 때 경쟁작이 최호철 작가의 <비밀>이었다. 강한 텐션 속에 휴머니티를 놓치지 않는 강렬한 필력에 매료되었는데,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다”며 최작가에 대한 믿음을 숨기지 않았다.

<아테나 전쟁의 여신>, <천일의 약속>, <야왕>에 이어 시청률 연타석 홈런을 노리는 수애는 첫 회에서 가난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백화점 판매원 지숙과, 국회의원 딸이지만 마음이 병든 은하 역을 완벽하게 오가는 명품 연기를 선보였다.

### ‘<풍들소> 인기 있다’...<상류사회> 본격 시동

재벌 딸과 개천 용의 어긋난 만남- 유이, 성준 출연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후속으로 방송될 <상류사회>(극본 하명희, 연출 최영훈)가 5월 7일(목) 일산제작센터에서 첫 대본 리딩을 갖고 본격적인 작품 만들기에 돌입했다.

<상류사회>는 황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재벌 딸과 황금사다리를 오르려는 개천 용 두 사람의 불평등한 계급 간 로맨스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오포세대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스터리 청춘멜로 드라마이다.

지난 7일(목) 유이, 성준, 박형식, 임지연, 유소영 등 청춘스타들과 고두심, 윤주상, 윤지혜, 양희경 등 중견배우들이 모인 총 대본리딩 현장에서 유

이와 성준은 내 모든 걸 버려서라도 진짜 사랑을 찾고 싶은 여자 ‘장윤하’와 사랑 따윈 신분 상승의 도구일 뿐이라고 여기는 냉혈남 ‘최준기’의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며 호평을 받았던 SBS <따뜻한 말 한마디>의 하명희 작가와 최영훈 감독이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류사회>는 6월 8일(월) 첫 방송 된다.

### 사상 최초! 여자들의 생존릴레이 관심 후끈

<정글의 법칙 in 압> 5월 29일(금) 첫 방송

<정글의 법칙 in 압>(연출 박중일이) 5월 29일(금) 첫 방송된다. <정글의 법칙 in 압>은 김병만, 류담을 비롯해 류승수, 이정진, 박한별, 배수빈, 윤상현, 이이경 등 브라운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배우들과 가수 은지원, 다솜(씨스타), 정진운(2AM), 강남(M.I.B)의 스페셜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크로네시아의 압(YAP)에서는 돌이 황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다. 스톤머니는 압의 전통화폐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화폐. 멤버들은 신비의 섬 압에서 오로지 돌을 도구로 이용해 생존하면서 사냥거리가 떨어지면 새로운 생존지를 찾아 떠나는 구석기 시대 유목민이 된다.

처음으로 리얼 버라이어티에 도전하는 배우 박한별과 씨스타의 막내 다솜이 정법 사상 최초로 여배우와 여자 아이돌의 생존 릴레이를 펼친다. 박한별은 때로는 사랑스러운 엉뚱함으로, 때로는 무서운 생존력을 선보이며 함께한 남자 부족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고, 막내 다솜은 상큼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오빠들의 활력소가 되었다.

제작진은 정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두 사람의 역대급 활약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 희망TV SBS 이틀간 총 59억 8천만 원 모금... 모바일 통해 31만여 명 참여



2015<희망TV SBS>가 5월 15일(금), 16일(토)에 걸쳐 총 11시간 5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2015<희망TV SBS>를 통해 8,251명의 시청자들이 정기후원자로 가입하였고, 모바일 참여 및 소액기부, 오프라인 이벤트까지 총 59억 8천만 원이 모여, 제3세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는 <희망TV SBS>는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을 소개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 눈물겨운 호소로 시청자 마음 움직이다

해외 VCR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해 상황들을 시의성 있게 다뤘다. 3개월간의 대홍수로 인해 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마다가스카르, 81년만의 대지진 참사로 힘들어하는 네팔의 최근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네팔을 다녀온

후 지진소식을 듣고 다시 네팔을 찾았던 한고은이 스튜디오에 나와 눈물을 참아가며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 희망과 꿈이 있는 아프리카 소개로 진화

에티오피아 한별학교 아이들에게 100대의 카메라를 주고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진짜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전한 명품 다큐멘터리 <한별학교와 꿈꾸는 아이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아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희망을 느끼게 했다.

또 사진전 <아프리카의 별>은 사진작가가 담아낸 아프리카의 자연과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100명의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직접 찍은 100장의 작품을 함께 전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5월 5일 개관 이후 약 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사진과 도록 판매액만 1,400여만 원에 달했다.

### 모바일 기부 <희망톡톡>, 젊은 층 참여 이끌어

젊은 층으로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준비한 모바일 기부 프로젝트 <희망톡톡>은 희망TV 홈페이지와 SBS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약 31만여 명의 온라인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모바일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약 1,200만원의 후원금액이 모였으며, 다큐멘터리 <한별학교와 꿈꾸는 아이들> 관련 글과 사진을 연재한 DAUM 뉴스 펀딩으로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모여, 2,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 〈풍문으로 들었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고아성 TV 여자 신인 연기상, 〈편지〉 극본상 수상



지난 5월 26일(화)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제 5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연출 안판석, 이하 풍들소)가 TV부문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풍들소〉의 전작인 SBS 월화드라마 〈편지〉의 박경수 작가는 TV극본상을 수상했고, 〈풍들소〉에서 서퐁 역을 열연한 고아성은 TV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노키오〉의 이종석과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의 크리스탈이 각각 TV남자인기상과 여자인기상을 수상하는 등, SBS드라마가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경쟁작들을 압도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용모 사장 〈풍문으로 들었소〉 현장 방문, 격려



지난 5월 22일(금) 이용모 SBS사장이 인기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이하 풍들소) 촬영현장을 방문하여 배우들과 제작진을 격려했다. 이용모 사장은 김영섭 드라마본부장과 안판석 감독, 한정환 EP, 배우 고아성, 장현성, 윤복인을 만나, 대중적인 인기와 작품성 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풍들소〉 제작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풍문으로 들었소〉 세트장 임대 문의도 줄 이어

또한 건평 300평에 이르는 〈풍문으로 들었소〉 한정호(유준상 분)의 초호화 주택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슈에무라’의 광고세트장으로 사용되었다. 드라마운영팀 장기웅 차장은 “품격 있는 인테리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풍들소〉 세트장을 임대해달라는 곳은 많았으나, 광고 콘티와 드라마 연계성이 가장 좋은 슈에무라 측과 계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골라 듣는 뉴스룸 팟캐스트 〈골룸〉 오픈

뉴스에 담지 못한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까지...



보도국 뉴미디어부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골룸〉이 5월 4일(월) 정식 오픈했다.

〈골룸〉은 ‘골라 듣는 뉴스룸’의 줄임말로써, 특정 분야에 국한된 기존 팟캐스트와 달리 SBS 보도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콘텐츠를 편

안하게 골라 즐길 수 있는 팟캐스트이다. 스튜디오가 아닌 ‘골방’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라는 뜻도 있다.

〈SBS 8 뉴스〉前 앵커 김성준 기자가 정치와 경제 코너를 담당하고, 인기 팟캐스트 〈씨네타운 나인틴〉의 진행자인 이송훈 라디오PD와 〈SBS 8 뉴스〉前 앵커 김소원 아나운서, 신입 아나운서 김선재 등 PD와 아나운서도 참여한다.

각 분야의 전문 기자도 출연한다. 정치 분야 주영진 정치부 데스크, 의료 분야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 경제 분야 김범주 경제부 기자가 고정 출연하고, 문화부 기자들이 대거 참여해 음악, 공연, 영화 소식을 전한다.

또 SBS의 특종이나 기획 보도의 못 다한 얘기를 해당 취재 기자가 전하고, 뉴스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의 손님도 초대한다. 〈골룸〉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과 애플의 ‘아이튠즈’, 그리고 SBS뉴스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 SBS 파워FM 라디오 채널 점유율 1위 등극

〈두시 탈출 컬투쇼〉 9년째 전체 점유율 1위 수성



SBS 파워FM(107.7MHz)이 올 4월에 실시된 청취율 조사에서 채널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 23.2%를 기록한 SBS 파워FM은 2위인 MBC AM(22.2%)을 제치고 채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두시 탈출 컬투쇼〉는 이번 조사에서도 점유율 12.9%로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하면서 9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또 〈두시 탈출 컬투쇼〉 외에도 〈호란의 파워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창렬의 올드스쿨〉, 〈박소현의 러브게임〉 등 파워FM의 6개 프로그램이 청취율 상위 20개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다. (주중 프로그램별 점유율 기준)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4월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청취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1.8%포인트다.

## 〈나의 할아버지 김학철〉 이달의 PD상

〈SBS스페셜〉 3.1절 특집 ‘나의 할아버지 김학철, 조선 의용대 최후의 분대장’이 한국PD연합회가 시상하는 ‘제 181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TV 시사·교양부문 수상작인 〈SBS스페셜〉 3.1절 특집 ‘나의 할아버지 김학철,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연출 김종일·조천현)은 항일투사 김학철 선생의 발자취를 손녀를 통해 되짚어 본 프로그램으로, 편향되고 소실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또 다른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SBS 문화재단

### 최우수작 ‘천 원짜리 변호사’ 5천만 원 수상

2015년 제1차 극본공모 최우수상 등 7편 시상



SBS문화재단은 2015년도 제1차 극본공모 당선작으로 최수진, 최창환의 〈천 원짜리 변호사〉 등 미니시리즈 6편과 연속극 1편 등 총 7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5월 21일(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나눔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상패와 상금 5천만 원, 우수상은 상패와 상금 2천만 원, 가작은 상패와 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 이번 극본 공모에는 미니시리즈와 연속극을 합쳐 총 521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1~3차 예심과 본심을 통과한 7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가작 4편)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 2015년도 제1차 극본공모 당선작

- 최우수상 최수진, 최창환 ‘천 원짜리 변호사’(미니시리즈)
- 우수상 박연혁 ‘청춘’(미니시리즈) | 천모정 ‘MISSING’(미니시리즈)
- 가작 류성희 ‘진실게임’(미니시리즈) | 모지혜 ‘신의 한 수’(미니시리즈)
- 문영주 ‘당신은 참 쉬운 남자’(미니시리즈)
- 박미라, 장혜경, 정옥경 ‘오늘도 스마일’(아침/일일연속극)



## 〈어벤져스 스테이션〉 그랜드 오픈, 관람객 줄 이어

월드투어 첫 전시 SBS 주관방송... 실제 체험 화제 만발



우리나라에 열풍을 몰고 온 영화 〈어벤져스〉를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동원해 최첨단 교육 전시 마블로 탄생시킨 〈어벤져스 스테이션〉이 5월 15일(금)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되고있다.

월드디즈니 컴퍼니 자회사인 마블엔터테인먼트가 기획한 〈어벤져스 스테이션〉은 작년 뉴욕 타임스퀘어 흥행에 성공한 체험형 전시로, SBS는 주관 방송사로 월드투어 첫 도시인 서울 전시를 진행한다.

〈어벤져스 스테이션〉은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직접 스테이션 본부의 요원이 되는 기회를 갖고, 훈련 받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된 채용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관람객을 완벽하게 몰입시킨다. 관람객들은 입구에서 나눠주는 갤럭시 기어를 손목에 차고 '닥터 조' 수현의 지령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며 '브리핑룸', '아이언맨 연구소', '헐크 실험실', '토르의 우주전망대' 등 각각의 공간에서 아이언맨 수트를 작동시키는 법, 아스가르드를 찾기 위해 별들을 지도화 하는 방법을 배우고,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로 바뀌는 신경학적인 변화를 관찰하거나 캡틴아메리카의 힘을 테스트 할 수 있다. 오픈런으로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 “잠 못 드신 분들에게 애뜻한 사연을”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일 02:00-04:00

안녕하세요?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DJ, 뮤토지기 이현경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숨, 〈에스터데이〉의 잠깨미를 거치며 새벽에 청취자를 만난 지 어언 13년,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DJ와 PD를 겸한지는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에 듣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도 받아봤고, 함께하는 청취자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줄 몰랐으며 새삼스러워 할 만큼 새벽 두 시는 끝내지 못한 어제와

일찍 시작하는 오늘이 교묘하게 겹쳐지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야근하는 직장인들, 아르바이트생들, 택시·화물 운전기사 분들,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 임신·육아로 낮밤이 바뀐 어머니들, 공부하는 학생들, 고민과 과제로 잠 못 드는 많은 이들이 다 〈뮤직토피아〉 식구들입니다.

진솔한 얘기들을 어렵게 꺼내 놓기에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내 일 같아서 읽다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공감지수를 높여갑니다.

석 달 전부터는 사연이나 편지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 세 분을 선정해서, 제가 직접 고른 엽서에 수기로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내 옆에서 병간호 중인 남편 분, 장래 아나운서가 꿈이라는 제주도 학생, 한쪽 손이 불편한 여자 택시 기사 분…… 이렇게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분들께 사연에 맞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수필집이나 꿈을 응원해주는 자기계발서 등의 좋은 책을 골라서 엽서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진심이 통했는지 반응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시간대의 매력 때문인지 청취자분들과 더 밀접해지면서 분에 넘치는 '여신' 호칭도 낯생 처음 듣게 되었는데, 여신보다는 생활인으로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을 챙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애청자 분들이 칭찬한 '분위기 있는 가운데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오늘도 〈이현경의 뮤직토피아〉는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죠?”

## SBS 자체 기술 주목... 체험전 단연 인기

‘제 25 회 국제방송, 음향, 조명기기 전시회 (KOPA 2015)’가 지난 5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삼성동 COEX에서 진행되었다. KOPA 2015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외 최신 방송 장비 및 솔루션과 다양한 세미나들로 풍성하게 채워진 국내방송기술 관련 최대 전시회이자 축제이다.



KOPA 2015는 ‘방송감성을 연결하다(Broadcasting, Touching your emotion)’라는 슬로건으로 시청자들의 감성 만족을 위한 전시와 국제방송기술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지난 KOPA 2014의 슬로건이 초고화질방송(UHD)의 시작을 알리는 ‘Join the UHD World’였음을 상기하면 방송기술이 단순한 화질개선을 넘어 인간의 오감을 충족하는 콘텐츠 제작의 기반요소로 발전중임을 알 수 있었다. 함께 진행된 KOPA World Media Forum 2015에서는 ‘미디어 전쟁, 죽느냐 사느냐 (Media War, To be or not to be)’를 주제로 BBC, Google, Netflix, NAB 등의 방송국, 기업, 단체들이 참여하여 TV의 미래와 플랫폼 전쟁의 시대를 맞아 기업 생존을 위한 전략과 가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SBS는 ‘초연결시대의 방송기술(Broadcasting Technology over Super-connectivity)’이라는 참여주제로 1)초고화질방송(UHD)실험방송시스템 구성과 실험방송 결과, 2) UHD 콘텐츠 송출용 서버, 3)방송영상의 자막 자동제거 수출용 영상을 생성하는 클린본 자동생성시스템, 4)방송되는 콘텐츠의 오디오에 저작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삽입하는 콘텐츠 보호 시스템, 5)양방향 TV 방송 플랫폼과 장면연동 T-Commerce 서비스 등 자체개발한 최신의 방송기술들을 전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SBS는 전시관을 4K UHD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목조주택 컨셉트로 구성하여 여러 참관객들로부터 ‘스위스의 산장’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현관, 정원, 거실 및 서재로 나누어서 전시하여 전시 내용이 각인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SBS 채널 홍보를 위해 ‘SBS KOPA Quiz’와 〈별에서 온 그대〉의 대표적인 촬영 기법중 하나인 Time Slice 체험존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즐겁게 참여하였다.

방송장비 및 기술세미나가 중심인 전시회에서 SBS와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부스는 일반참관객들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방송관련 기술과 콘텐츠로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KOPA 참관객들의 인터넷 SNS 후기나 언론매체들의 기사가 주로 지상파 방송사부스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시 메시지를 재전달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KOPA가 UHD방송과 차세대 영상기술에 대한 SBS의 의지와 방향을 홍보하는 기회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우어 여러분에게도 기술부문 소속이 아닐지라도 일 년에 하루 정도는 방송기술의 트렌드를 접하는 기회인 KOPA 전시장 방문을 적극 추천하고자 한다. 2016년 5월에도 KOPA 전시회가 개최되니, 금년에 기회를 놓친 사우분들은 내년엔 한번쯤 편안한 셔틀버스를 타고 전시장을 방문하면 새롭고 풍성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상의 업무와 전시준비를 병행하며 고생한 KOPA 관련 사우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술기획팀 이재영 차장대우

## IT시스템 발전 주도한 ERP팀 이기석 부국장 정년

2015년 5월, ERP팀 이기석 부국장이 정년을 맞는다. 이기석 부국장은 1991년 입사 이후 SBS IT 업무 시스템 선진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SBS가 저비용 고효율의 최신 IT 업무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업계 최초로 기사 송고기능을 갖춘 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SBS의 개국 과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SBS만의 선거방송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 선거방송의 토대를 갖추었다. 이후 ERP팀의 팀장으로 종합OA, ERP 및 WISE에 이르는 IT 시스템의 발전을 주도하여 SBS의 업무 환경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



## 경조사

· 애도합니다

제작리소스팀 심광영 팀장 부친상(5월 7일)

인프라관리팀 권택수 차장 빙모상(5월 10일)

제작본부 예능국 윤종호PD 조모상(5월 26일)

사우 여러분의 사보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행 후기나 독후감, 전시나 공연 관람후기, 그 밖에 사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사보 담당자(PR팀 전은진 차장)에게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수예당 화과자 등)을 드립니다.

수예당 화과자